

대학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김 정 오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1. 서론

우리 나라 대학들에 사회교육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이다.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대학 사회교육원은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그 동안 사회교육은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확대교육과정(extension program),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으나, 이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처음 사회교육원이 만들어졌을 때, 주요 교육대상은 지역주민들이었고,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학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원의 강좌들이 대학을 상업주의나 대중주의에 영합시킴으로써 대학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대학 교유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염려했었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사회교육원의 강좌 수준이나 수강생들의 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사회교육원에서 강좌를 맡는 것을 꺼려 왔다.

과연 사회교육원에서 담당하는 계속교육, 평생교육이 낮은 수준의 강좌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강좌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사회교육원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사회교육원이 한국의 교육체제, 나아가서는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IMF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보다 진지하게 사회교육원이 한국의 교육체제에서 담당해야 할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대학 사회교육원들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분석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 150개, 과정수는 3,555개, 전문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 85개, 과정수는 1,099개이며, 총 사회교육원수는 235개, 총 과정수는 4,654개에 이른다. 그리고 학생정원은 대학 사회교육원이 184,272명, 전문대학 사회교육원이 40,530명으로 총 224,802명에 이른다(교육부 통계자료 제공). 이와 같은

현상은 불과 10년 사이에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개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학생수가 적어 폐강되는 과정들도 상당수 될 것이며, 정원을 다 채우는 과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육원이 설립되는 시기에 이미 각종 신문사나 대형백화점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문화센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급증하였다는 것은 대학 사회교육원이 지역주민들의 학습욕구에 대응하여 무엇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각 사회교육원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몇몇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회교육원의 특성과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명지대,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의 '99년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각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을 크게 교양과정, 직업관련 과정, 여가 및 취미활동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분류하였는데, 때로는 과정들의 성격이 상호 중첩되거나 혹은 어느 한 항목으로 분류되기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개설과정들을 분류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서 각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편의적인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표>> 사회교육원 개설과정현황 -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관련 과정은 경영과 관련된 과정들, 예를 들어 국제금융 분석사, 파생금융 등을 포함시켰고,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는 분야들, 아동미술 지도자, 방과후 아동지도사, 미용아트 지도자 등의 과정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여가 및 취미활동 과정은 주로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의 과정들을 포함시켰다. 교양은 일반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들과 외국어과정들을 포함시

켰다.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점취득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과정들이다.

명지대의 경우, 4개 대학 중 가장 많은 과정들을 설치

대 학 과 정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교양 과정	8	32	41	8
직업관련 과정	50	40	26	23
여가 및 취미활동 과정	14	13	9	2
학점은행제 과정	29	미개설	9	20
합 계	101	85	85	53

<표> 사회교육원 개설과정현황 -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업관련 과정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수강하지만, 교양으로 수강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래강사 지도자, 유아 국악지도자 등의 과정은 실제로 노래를 지도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국악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취미로 수강할 수 있으며, 혹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직업관련 과정들은 주로 여성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관련된 과정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디자인, 비서·도우미 등 여성들이 손쉽게 창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관광경영,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주로 남자들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과정들도 상당수 개설하고 있다.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직업관련 과정들은 영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이 지닌 특징은 철저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과감하게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음악, 연극영화, 경호의전, 무예, 호텔·레스토랑 종사원 등 기존의 대학들이 개설하기 꺼려 하는 과정들을 과감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다른 대학들보다 먼저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각 과정들이 체계적인 짜임새를 보이고 있다. 과정들을 전문교육 과정이나 교양교육 과정 등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어, 수강자들이 손쉽게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직업관련 과정들도 명지대와는 달리 좀 더 전문화하거나 직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이 1년 혹은 2년의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화여대 주변의 많은 미용실 경영자나 종사자들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여자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직업관련 과정들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 카운슬러, 노인교육, 실내디자인 등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교양 과정들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나, 주로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된 과정들이 많으며, 심리학관련 과정들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이화여대의 강점과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을 잘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화여대-연변 간호학 아카데미를 개설함으로써 사회교육원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중앙대는 비교적 늦게 출발하였으나, 최근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회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직체계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 달리 독립된 사회교육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다양한 부처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던 비정규교육 및 계속교육의 성격을 지닌 교육프로그램들을 사회교육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교육원 설립시기가 다른 대학들보다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정수가 많지는 않지만, '99년도 과정 안내서에서 곧 개설할 것으로 예정된 과정수가 36개로 현재의 과정수보다 많다. 중앙대 사회교육원의 특징은 교양이나 여가 및 취미활동의 과정들이 대단히 적은 대신, 직업관련 과정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명지대나 이화여대와 달리 전문적인 직업관련 과정들이다. 물류유통, 외식산업경영,

마케팅컨설턴트 등 IMF 이후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고도의 지식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고, 개설 예정프로그램들도 경영관련이나 직업관련 과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연세대의 경우는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원의 설립이 5년 여에 불과하여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큰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약진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양 과정과 직업관련 과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교양 과정이 월등하게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세대 내에 사회교육원과 유사한 교육기관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산원, 어학당, 상남경영원 등 비정규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병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관련 과정들이 직접적으로 직업훈련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주로 기존의 직업인들을 재교육하거나 연수하는 차원의 과정들, 예를 들어 논술교육 지도자, 교회장식 지도자, 피아노 지도자 등의 과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직장인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다른 사회교육원과 달리 연세대 사회교육원 내에 미디어아트 교육센터를 두어 기업이미지전략가 스쿨, 영상미디어작가 스쿨 등을 신설하고, 이 과정들이 인턴시브 교육과정이란 점이 눈에 띈다.

앞에서 간단하게 비교한 4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특성이 사회교육원 과정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학들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들은 나름대로 차별화 및 특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교육원의 특성

사회교육원에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의 정규과정과 달리 사회교육원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할 사회교육원의 특성들은 필자가 사회교육원 일을 맡고 나서 체득한 것들이다.

1) 역동성

전통적인 대학교육체제가 정태적이고 체계적이라면, 사회교육원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은 역동적이다. 기존의 대학교육 과정들은 대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물론 교육내용들이 교육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체제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카데미즘이 갖고 있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체제나 전통에 반드시 없애질 필요가 없다. 현실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많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새로운 과정들이 개설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바로 사회교육원이 갖고 있는 특유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방성

인력수급에 있어서 전통적인 대학체제가 폐쇄적인데 비해, 사회교육원은 대단히 개방적이다. 사회교육원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교육대상자는 특별한 전형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수강자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어떠한 것이라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자 역시 기존의 대학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원은 개방적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원은 일종의 교차로와 같은 곳이다.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과정을 개설해 주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매개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교육원 행정담당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얼마만큼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사

회교육원의 성패가 달려 있기도 하다.

3) 다양성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하게 고른 데 비해서 사회교육원의 수강생의 수준과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사회교육원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사회교육원의 역동성을 산출해 내는 원천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이 일방향이 되기보다는 쌍방향적이다. 다양한 학습자의 구성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4) 수요·공급 원칙의 철저한 적용

사회교육원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교육영역이다. 대학체제의 폐쇄성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부터 대학을 자유롭게 하는데 비해서 사회교육원은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다. 예를 들어 강의 개설자가 수강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정을 개설해도 학생이 없으면, 즉시 폐강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정에 학생들이 꾸준히 등록하면, 그 과정은 살아남는다. 이처럼 시장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원의 역동성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4.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향과 전망

한국의 대학 사회교육원들이 10여 년의 짧은 시기에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사회교육원 상호간에 교과과정들이 중복되고, 다른 성인교육기관들의 개

설 과정들과 중복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교육원의 양적 팽창은 곧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 교육프로그램의 난립으로 인하여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사회적 역량의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각 대학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사회교육원이 지닌 특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회교육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에 비추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교육원의 위상 재정립

사회교육원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행정담당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이 미국의 모델이다. 예를 들어, UCLA 사회교육원이 연간 수강생이 15만 명 이상, 버클리대학이 연간 6만여 명의 수강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대학 사회교육원도 이러한 양적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과 미국의 성인교육체제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장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설 기술학원이나 어학학원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교양 및 취미 프로그램, 문화센터, 산업대학, 방송대학, 독학사 프로그램,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및 정부의 재취업훈련 프로그램 등 그 수나 종류에 있어서 한국만큼 성인교육기관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대학에서는 학사후 학위과정들인 특수대학원이나 교위자과정, 그리고 전산원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어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과정들은 미국의 사회교육원에서 계속교육이나 확대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 사회교육원들은 이러한 대학 내외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사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사회교육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타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과 인식의 전환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이 여전히 초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초기에 사회교육원들이 제공한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반인들이나 대학내 구성원들이 사회교육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종에 적합한 인텐시브한 과정들을 개설해도 사회교육원 수료증을 폼파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회교육원들 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계나 지식계 등에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수강자들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교육원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50년대 미국의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시민들의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60년대부터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개념이 등장하고 산업계 및 주정부의 요구에 따라 서서히 직장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전문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는 사회교육원의 중요성이 오히려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 못지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프로그램, 위탁교육 프로그램, 최고경영자나 산업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교육내용과 수준이 대단히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대학운영자들이나 최고행정가들 모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평생교육을 통해서만 미국인들이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가하고 있는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회교육원도 대학에서 발굴된 새로운 지식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용된 강좌들이 보다 많이 개설되어야 하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제공하는 과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기존의 사회교육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교육원의 지역기반 강화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원이 지역의 산업계,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원의 양적, 질적 발전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훨씬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사회교육원들이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의 산업계, 노동계 그리고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교육원은 전국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대학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고유한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요구되는 인력의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어학이나 기술관련 사설학원들이 중·소도시에는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때, 지방의 사회교육원들은 보다 강력한 지역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4)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들, 특히 직업관련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고도의 지식산업보다는 기능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경영지식이나 교양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역시 미

국과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주지사 협의회에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정보기술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설해 줄 것을 대학사회교육협회에 요청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사회교육원도 교양 증진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이나 특수대학원 그리고 고위자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내의 인력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교육원에 대학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이유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과정보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교육원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강점이다. 이러한 요소를 잘 활용하면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원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역동성을 잘 활용하면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이 갖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 개발전문가는 최근 교육부에서 의무화하려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원에서 다루는 분야가 대단히 다양하고 그 수준 역시 다층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다. 현재 사회교육원에서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전문가는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사회교육, 평생교육 혹은 성인교육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각 과정이나 영역의 전문가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의 교수들과 외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통해서 보다 고도의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6)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교육부는 최근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이 학점은행제인데, 그것은 사회교육원이 담당해야 할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독학사과정, 방송대학, 야간대학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대학과 시간제등록제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등 정상적인 대학입학 연령에 입학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회교육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학위취득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의 전수이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다 정련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양과 직업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통제나 제한보다는 보다 자율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이유로 이와 관련이 없는 과정들까지 학점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백 개의 과목을 미리 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목의 내용도 기존의 대학에서 가르쳐 온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있다.

이것은 사회교육원이 갖고 있는 특유의 역동성, 개방성, 실용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교육원은 역으로 대학사회에 활력과 자극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주로 이론 지향적인 대학교수들이 사회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보다 현장실무에 밝은 수강생들을 통해서 자기 이론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신설이나 개발은 교육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하기보다는 철저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교육원은 기존의 관료적 통제보다 훨씬 냉혹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2]

김정오

연세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로서 연세대 사회교육원 교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푸코의 권력 이해와 법」,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 「근대사회에서의 법」(역서), 「현대 법철학의 흐름」(공저), 「법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